

도시경관 중심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Measure of Resident-participation Village Formation the center of urban landscape

- On Cases of Japan, England, and USA -

동재욱* 이병대** 고인룡*** 이화룡****

Dong, Jae-Uk Lee, Beoung-Dae Koh, In-Lyong Lee, Hwa-Ryong

Abstract

Understand that forming urban images and improving urban ident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with resident-participating villages, local governments began to focus on selection and management of physical components to form urban identity. Recently, when the quality of urban scenes is posed as a problem, urban beautification projects including urban environment reorganization and scenery management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in many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ases of Japan, England, and USA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s conduct resident-participating villages to establish a frame of analysis, to classify the purposes, directions, contents and properties of projects, scenes, and formation of villages based on the established frame of analysis, to deduce suggestions from the view of urban scenes and formation of villages, and to present basic measures for developing projects with which local residents can form villages centered on urban scenes subjectively and autonomously in Korean local communities in the near future.

키워드 : 도시경관 ,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keywords : urban landscape, build up Village, residents participa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다양한 지역문제에 관심이 집중 되었고 동시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주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급증 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주민이 참여 하는 “마을 만들기”가 대표적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 및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관 중심의 정책사업 또는 모델사업 성격으로 이행되어 오고 있으며 주민 참여적이며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수법 또는 마을단위 도시설계 실현을 위한 수법으로까지는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변화를 받는 등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미약하며 대다수 주민들은 실제 필요성이나 효과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도시 이미지와 도시 정체성 형성이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을 주지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정체성을 형성 할 수 있는 물리적 구성요소 추출과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 하였고 최근 들어 도시경관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 지역에서 도시환경 정비계획, 경관관리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도시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지닌 도시경관은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 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쾌적성과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경관의 조성정책과 함께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 간 경쟁이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 성장 및 물리적 개발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를 만들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의 개성을 살린 도시경관과 함께 양질의 삶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도시 조성을 주민의 참여를 통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에 의해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영국, 미국의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시경관중심의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마을 만들기를 실행하는 기본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정회원, 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정회원, 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건축사

*** 정회원, 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정회원, 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공주대학교의 2009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임

2. 연구를 위한 사례대상지역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외국의 사례지역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사례지역 및 특징

지 역	특 징
우스키시	역사적 경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 관민 협동 작업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오부세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등 지역상인 중심의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추진
페캅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그곳에 새로운 커뮤니티광장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실시
셰펠드	도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심부에 첨단제조 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도심부에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 담당
샌프란 시스코	도심부 오픈스페이스에 도시디자인 집중
벌링턴	도심에 자동차를 배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

도시경관은 도시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고 도시의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시의 보행 및 가로 공간, 공원 및 녹지공간,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가로시설물, 가로수, 간판, 건축물의 외관 및 연속성 등이 도시경관의 주요 요소로서 도시환경을 결정짓는 척도가 된다. 때문에 이들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경관 마을 만들기 사례를 분석하여 경관 마을 만들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관을 중점으로 시도된 마을 만들기 사례는 그 유래가 없어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경관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례들을 살펴보는 방법과 마을 만들기 사례들 중에서 경관적인 면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정의

3.1 도시경관

도시경관은 외부적인 환경이며, 문화적 대상으로서 일반적인 개념은, 학문영역 및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자연환경이나 건축물, 공작물 등의 인공 환경의 시각적 표현과 도시의 사회, 경제활동, 분위기, 문화적 풍취 등의 총체적 체험을 내포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도시 경관의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각적 구성이지만, 그 속에는 도시 공간 구성을 위한 각종계획, 규제, 자연생태 등으로 내재 되어있다.

도시경관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도시의 모습으로 실체로서의 객관적, 물리적 환경과 관찰자의 주관적 체험이 결합된 하나의 복합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도시 활동이나 장소, 역사 문화적 의미 등 비 가시적 영역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도시경관이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대상으

로서의 성격은 물론 우리의 오감에서 느껴지는 도시이미 지나 시민생활의 분위기, 그를 수용하는 인간의 심리적, 체험적 현상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도시경관이란 크게는 대상으로서의 보이는 환경과 그를 보는 주체인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관계적 개념이다.

3.2 주민참여

주민(Citizen)은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주민이 아닌 한 도시의 정치사회적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거주성, 이해관계, 공공성이 결합된 개념으로써 지역의 주권자, 의사결정기관,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된다.

주민참여는 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욕구로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정보기능, 주민사회에의 접근기능, 결정에의 참여기능, 행정책임기능 등을 수행한다.¹⁾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 기반을 유지 및 확충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여 정부, 지자체,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집합적인 활동의 주민 운동적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파악²⁾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욕구로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정보기능, 주민사회에의 접근기능, 결정에의 참여기능, 행정책임기능 등을 수행한다.³⁾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참여적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강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성숙되고 있는 오늘날 주민참여는 핵심적인 사회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방식은 크게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의 수립과 같은 공공주체에 의한 공공계획 입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주민참여에서부터 공공사업계획 및 시행과 같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커뮤니티 참여,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보다 주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계획 및 실시에 대한 관련 주민참여, 혹은 다수의 개인이 사업에 참여하는 입주대상자의 직접참여 등 다양한 참여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시민참여와 같은 포괄적인 참여방식은 전문가 및 시민대표집단에 의한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시민 간접참여, 공람 등과 같은 간접적인 참여방법을 활용하게 된다.⁴⁾

이러한 주민참여의 성격 및 역할은 다음의 표와 같이 홍보활동, 공청활동, 자치활동으로 그 성격을 구분해볼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p.207
 2) 이윤석 외1, 함평군과 나가하마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비교연구 -마치즈쿠리 구조모델 적용과 행정의 역할과약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우수출판논문집 제4권 제1호(통권4호), 2008, p.82
 3)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p.207
 4)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p.208

표 2. 주민참여의 성격 및 역할

성격	내용	역할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지시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 - 자체가 주민참여의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참여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 등 각종 행정서비스와 행사를 통보하는 일 - 주요시책과 각종 상업시설 상황의 설명 등 행정추진사항을 홍보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일 -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일 - 행정상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공청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요구·의사를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 - 개별공청은 민원의 형태로 행정에 대한 진정과 투서, 전화 혹은 직접방문에 의해 이루어지며, 집단공청은 여론조사, 주민모니터제도, 대화/집회, 주민회의 등으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요구, 제언 등의 청취 및 행정에의 반영 - 행정시책의 효과측정 내지는 행정의 환류기능의 확보 - 행정에 대한 주민고충의 처리 및 조희 -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자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의견을 모아 이를 실천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 - 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과 주민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의식을 고양 -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주민주도를 통해 행정지원 촉발 -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발전의 모범 창출

자료: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p.208

3.3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는 일본의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를 번역하였으므로 흔히 마을을 대상으로 한 장하기 쉬우나 마찌즈쿠리의 대상범위는 넓게는 국토에서 작게는 마을 안의 썸지공원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내용이 보다 넓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⁵⁾

아시다(芦田英機)⁶⁾는 ‘마찌즈쿠리’란 “도로·공원·하수도·건물 등의 시설을 만드는 「도시계획」, 환경·복지·교육·정치·행정 등의 사회시스템을 다루는 「사회계획」, 산업진흥이나 산업입지 등의 「산업계획」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시설 만들기, 체제 만들기, 업무 만들기의 총체가 마찌즈쿠리이다.”라고 하였다.⁷⁾ 특히 최근에는 주민주도의 지역운영활동을 의미하고 있다.⁸⁾

일본에서 1960년대 무렵까지의 도시계획의 개념과 최근

5) 오민근, 마을 만들기와 마찌즈쿠리, 그리고 지역 활성화, 정보광장 10월호(통권148호), 2003

6) 토요나카시(豊中市)정책추진부장, 전 마찌즈쿠리 지원실장

7)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p.96에서 재인용

8) 日本建築學會, まちづくり教科書 第1巻 -まちづくりの方法, 2004, p.13¹⁴

의 ‘마찌즈쿠리’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찌즈쿠리’는 물적계획과 사회계획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활동에 속하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 주민, 비영리단체(NPO)가 주체가 되어 하는 활동이고, 상향식의 풀뿌리 활동에 해당한다. 파트너로서의 전문가는 조정자이거나 기술적 자문역(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며,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⁹⁾

표 3. 마을 만들기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정의	비고
마을 만들기를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의 생활을 지탱하여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법과 과정	다무라 아키라 (2008)
지역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흐름을 이끌어 마을 만들기라 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정비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틀	문승국 (1999)
주민이 지역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자원의 공동관리를 지향하는 운동, 또는 거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여 계획에 주민참여를 도모하는 것	김찬호 (2000)
물리적인 도시경관 조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면과 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지역의식 고취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면 모두를 포괄하는 성격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마을조성활동	이윤석 (2008)
마을은 ‘모이다’라는 의미인 ‘마실’에서 유래한 용어로 개인과 개인이 모여 이룬 공생적, 자족적, 정서적 일체감을 함께 하는 자발적인 공동체	서순탁 (2008)

이를 종합해 보면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란, 주민들이 모여 자기지역에 대해 환경개선과 같은 물적 계획과 지역의식 고취와 같은 사회적 계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기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시켜 살기 좋고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도시 이상의 공간단위 영역을 재생하는 것은 도시재생, 그 이하의 공간단위 영역을 재생하는 것은 마을 만들기 혹은 마을재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3.4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관,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경로나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의 삶의 공간 가꾸기라는 측면에서 지속성이 담보되는 마을 만들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¹⁰⁾되기도 하지만, 마을 만들기과 주민참여는 커다란 맥락에서 그 뜻을 함께한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 자신의 지역에 맞게 살기 좋은 환경을 형성하는 과정, 이러한 활동

9)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p.96

10) 이윤석 외1, 함평군과 나가하마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비교연구 -마찌즈쿠리 구조모델 적용과 행정의 역할과약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우수출판논문집 제4권 제1호(통권4호), 2008, p.82

동 재 육, 이 병 대, 고 인 룡, 이 화 룡

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표 4. 일본의 도시계획과 마찌즈쿠리의 비교

구분	도시계획	마찌즈쿠리
용어 역사	1888년 동경시구 개정 조례	주로 1960년 이후에 사용
내용	도로·공원·하천, 하수 등의 도시기반시설 공공건축물 계획 등 계획 중심(한정적)	왼쪽의 도시계획 내용을 포함하면서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물리적 계획 및 사회계획을 포괄함(포괄적)
대상 범위	행정단위, 개발단위, 사업단위	주민 혹은 시민이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일정한 범위
주체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민, 주민, NPO, 기초지자체
의사결정과정	하향식	상향식
참가 형식	형식적 시민참가	주민·시민과 행정의 협력
활동 유형	진정 청원형, 반대운동	학습 제안형, 시민운동 또는 활동
전문 파트너	도시계획가, 건축가, 도시계획 전문가	마찌즈쿠리 코디네이터, 마찌즈쿠리 용역전문가 촉발자(facilitator)
용어 이미지	강제적, 위압적, 경직적, 정적, 계획가의 얼굴이 없음	은화, 유연성, 다이나믹(동적, 가변적), 계획가나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임
키워드	할거행정, 중앙집권	범행정, 민관 파트너십, 마찌즈쿠리 조직, 워크숍, 네트워크, 합의형성, 지방분권, 자치
	분석적, 획일적, 근대주의(모더니즘). 효율·효과	종합적·개성적, 근대주의의 반성(포스트 모더니즘, 살기 좋은 도시추구)

자료 : 三好庸隆, 1998, p.22,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p.96

4. 국내외 사례

4.1 한국 - 부산 문현동 안동네 벽화마을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 중 한곳인 부산 남구 문현동 산 23의 1의 '문현 안동네'는 2008년 3월 부산시 주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벽화마을"로 재생사업이 이루어진 사례로 안동네 벽화 사업은 부산시가 노후 주거지의 도시재생을 위해 달동네를 대상으로 추진한 첫 사례로써 골목길과 건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명랑한 주거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벽화를 통해 마을은 밝고 화사한 분위기로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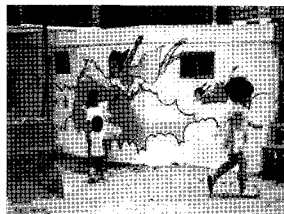


그림 1. 문현동 안동네 벽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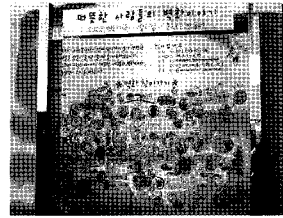


그림 2. 문현동 안동네 벽화마을 안내도

나면서 벽화 거리는 시민들로부터 주목받았고 영화의 촬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만큼 유명해졌다.

표 5. 부산 문현동 안동네 벽화마을 분석

구분	내용
목적 및 방향	- 노후 주거지의 도시재생 - 골목길과 건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명랑한 주거 커뮤니티 조성
계획내용 및 특성	- 건물 벽면 및 담장에 마을의 정서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벽화 작업
경관	건물외관 - 다양한 테마의 벽화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 디자인 기획부터 벽화 그리기까지 전 과정에 주민과 학생 등 230여명 자원봉사자와 같이 참여
	추진주체 - 부산시 주도로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4.2 일본

(1) 우스키시(臼杵市) 마을 만들기

우스키시(臼杵市)는 큐슈섬의 거의 동단에 위치한 면적 291.1km², 인구 4만 5,610명의 도시로써 주된 산업은 유자의 일종인 카보스와 복어로 대표되는 농림 수산업, 그리고 조선·양조를 시작으로 하는 공업 등이 있다. 1966년 오이타 국민체육대회를 위한 도로망 정비는 오일쇼크 등으로 인하여 지역거점 기업체의 쇠락 등으로 인구유출의 위기를 맞았다.

오이타 국민체육대회를 위한 중심 시가지의 가로 정비와 인구의 유출로 인해 전통적 건축물의 빈집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대적 건축물이 끼어듦과 정면을 파라페트(parapet)으로 가리는 거리풍경, 황폐해진 채로 방치 상가 마을 등은 아름답고 통일감이 있는 역사적 경관을 훼손하였고 보는 이로 하여금 황량하고 영락한 인상을 주게 되었다.

1975년 우스키의 역사적 거리풍경을 우스키의 재산으로 인식한 '우스키의 아름다운 거리풍경 경관을 지키는 모임'이 결성되었고 그들은 역사적 거리풍경의 보호 의식에 관한 앙케트를 실시하여 우스키시에 대해서 주민 의식에 근거한 거리풍경 보호 시책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이 모임은 1981년 '우스키의 역사 경관을 지키는 모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해 1983년 '전국 거리풍경 세미나' 우스키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 의해 우스키의 역사적 거리풍경이 전국에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행정이 구체적인 거리풍경 보호시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경관을 남기려는 우스키시의 행정과 주민들의 열의가 크게 작용해 1985년에는 재단법인 관광자원보호재단에 의한 관광 자원 보호를 위한 조사 대상에 선택되었고, 이로 인해 우스키 중심 시가지에서 전통적 건조물의 잔존율의 크기, 가로와 마을구획 및 부지 구획 등이 근세 말부터 거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부지 구획에 큰 변동 없이 건물이 다시 지어진다는 해도 경관에 유의하여 계획한다면 우스키의 역사 특성을 풍기는 경관 유지가 가능한 것도 시사했다. 이러한 조사와 검토를 근거로 우스키시는 지역 주민에 의한 경관 형성 의식의 촉진과 행정에 의한 역사적 경관 보전을 마을 만들기의 주요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시는 지역 주민 소유의 개인 주택의 뛰어난 경관·보전을 촉진하고 경관 보전 의식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1987년에 '우스키시 역사 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했다.

우스키시는 전선류의 처리에 고민하는 진흥조합에 전선류 지중화에 대한 보조항목¹¹⁾이 있는 '거리풍경 환경정비사업'의 적용을 제안하였고 진흥조합의 동의를 얻은 우스키시는 2000년에 중앙거리 상점가 일체를 이 사업의 정비 촉진 구역에 추가했다. 또 이 해부터 5년 동안 '우스키시 상업지역 경관형성사업'이 시작되어 중앙거리 상점가는 역사환경보전사업 보조와 함께 이 제도에 의한 경관보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건물 혹은 뛰어난 경관을 가진 건물에 의한 역사적 경관 통일 정비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스키는 현대의 마을 만들기의 수법으로서 역사적 경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것은 국민의 협동 작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표 6. 우스키시 마을 만들기 분석

구 분		내 용
목적 및 방향		- 지역 주민에 의한 경관 형성 의식의 촉진과 행정에 의한 역사적 경관 보전
경관	가로시설물	- 낡은 아케이드 제거, 전선류 지중화
	건물외관	- 외장을 전통적 디자인으로 통일
	기타	-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모습 정의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 개축·신축 등의 건축행위가 역사적 경관의 유지 보전에 어울린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보조금 교부
	주민참여	- 아름다운 거리풍경 경관을 지키는 모임 결성, 역사적 거리풍경의 보호 의식에 관한 양케트 실시
	추진주체	- 관·민·산·학의 협동 작업 - 행정적 역사적 경관보전을 마을 만들기
	개발방식	- 역사적 경관보전 조례에 의한 건축행위

11) 전선류의 지중화와 함께 중앙거리를 돌로 깎아 도로 포석으로 미화하는 수법

(2) 오부세 마을 만들기

나가노시에서 전차로 약 30분, 자동차로 30~40분 거리에 있고, 면적은 19.07km²로 나가노현 내에서 가장 작은 지역이다. 인구는 12,000명 정도로 관공서를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에 모든 집락이 배치되어 있다. 600년 역사를 가진 오부세는 밤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지역홍보,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그림을 전시하는 호쿠사이관(1976년 건설), 호쿠사이가 그린 천정화가 있는 간쇼우잉(岩松院)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알려져 인구의 100배인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런 성장에는 오부세의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작은 지역이지만은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마을 만들기를 꾸준히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실행하여 지역을 계속 관리 개량해 온 것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오부세 마을 만들기의 경위를 살펴보면 1981년 '녹음과 물과 역사의 마을, 삶에 문화가 숨 쉬는 마을, 특색 있는 산업의 마을, 거기에 사는 기쁨과 자랑을 느끼는 마을'을 미래상으로 하여 역사와 문화의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오부세마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1982년에서 1986년까지는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에 따라 역사문화 존을 설정하여 밤과자를 판매해온 오래된 점포나 민가 등 역사적인 경관을 갖추고 있는 마을의 중심부 지역에 보다 쾌적하고 개성 풍부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각각 역할 분담하면서 가로 정비를 시행하였다. 1986년에는 제2차 오부세마찌 종합계획 후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감 있고 아름다운 마을'의 1장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마을 만들기의 지침으로 '환경디자인 협력기준'을 만들었으며 지역별 특색을 살린 마을 만들기 존을 설정하였다. 정감 있는 마을 환경디자인 협력기준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정감 있는 마을 환경디자인 협력기준

구 분	내 용
신축 시	- 건물 외관과 색은 주위 배경에 맞춘. 평지붕 지양
	- 도로와 접하는 부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녹화를 하고 길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정감있는 경관이 되도록 함
	- 도로변의 담은 생활타리 등으로 녹화함 - 차고, 헛간 등 밖에서 보이는 것은 위치와 색을 고려함
가로풍경 고려 시	- 광고물은 절도를 가지게 세움
	- 대규모 건물이나 공작물을 세울 때는 배치나 형태를 배려함
	-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를 배려함과 함께 식재 등으로 녹화함 - 건물 앞에 공간을 두어 휴식의 장소로 이용함

가로 경관 개선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등은 지역 상인이 중심이 되었으며 행정의 관여 없이 주민주도로 추진되었다. 자발적으로 자기 토지를 조금씩 양보하여 보도를 확보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였으며 생활 만들기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생활 만들기 상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표 8. 오부세 마을만들기 분석

구 분	내 용	
목적 및 방향	- 역사와 문화의 마을 만들기	
계획내용 및 특성	- 주민들 자신을 위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경관	보행·가로 공간	- 도로와 접하는 부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녹화 - 도로변의 담은 생활타리 등으로 녹화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 건물 앞에 공간을 두어 휴식의 장소로 이용
	가로수	- 도로와 접하는 부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녹화
	간판	- 광고물은 절도를 가지게 세움
	건물 외관	- 평지붕 지양 - 건물 외관과 색은 주위 배경에 맞춤 - 차고, 헛간 등 밖에서 보이는 것은 위치와 색을 고려
	기타	-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를 배려함과 함께 식재 등으로 녹화함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 자발적으로 자기 토지를 조금씩 양보하여 보도를 확보하고 주차공간도 확보 - 정부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목표 설정
	추진주체	- 주민과 행정이 각각 역할 분담하면서 정비 시행
	기타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실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표창제도

4.3 영국

(1) 런던 사우스위크 페컴 지역

영국의 런던 남부지역 사우스위크 (Southwark)의 페컴 (Peckham) 지역에는 15년 전만 해도 거대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서민용 임대 아파트로 지어진 건물이 점차 낡아가면서 주민도 차츰 빈민층으로 바뀌었으며 마침내는 수습이 불가능한 할렘가가 되어 범죄율이 치솟고 치안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런던 시는 페컴 지역을 주요 도시 재생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거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로운 광장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988년 영국 최초의 건강 생활 센터 (Healthy Living Centre)인 페컴 펄스 (Peckham Pulse)가 소외 계층을 위해 개관되었고, 1995년에는 페컴 아치 (Peckham Arch)가 세워졌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서 페컴 도서관 (Peckham Library & Media Centre)이 2000년 3월 문을 열었다.¹²⁾

여러 공공시설물 중에 도서관을 건립한 이유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를 반영한 결과로써 이 외에 세금이나 주택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시설, 젊은 어머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지역공동체가 결 혼식장이나 파티 장소로 쓸 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 수

12)네이버/blog.naver.com/ggoong?Redirect=Log&logNo=120015698741)

렴하여 복합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서가 외에도 민원상담실과 탁아시설도 마련해놓았다. 그리고 시내와 가깝다는 것을 보게 해 저소득 주민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한 설계로써 4층은 시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을 좋게 하였다. 도서관이 문을 열 때까지만 해도, 슬럼화한 아파트 단지가 말끔해진 공간적 의미 말고는 문화적으로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도서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도서관 앞 넓은 터는 공원이자 자전거며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놀이 공간이 되었고 산책로가 되었고, 건물 내부의 유머러스한 디자인이 전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였다.

페컴 도서관은 처음부터 도서 대출 말고도 주민의 그룹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운용했다. 유아와 영아, 십대, 성인, 노인 등 연령대별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독서, 공예 및 예술, 컴퓨터 학습, 댄스 및 스포츠 그룹 등의 문화 센터 활동을 장려했다. 콘테스트와 시상 같은 이벤트도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시설과 기기는 정부의 재생 기금으로 보조되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강의를 맡아주었다. 이 모든 게 주민들에게는 무료였으며 단순히 그룹을 짜고 고무(鼓舞)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예컨대 독서 그룹의 경우, 일부 도서의 구입과 대출 관리 및 열람실 운영을 주민 자율에 맡긴 것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책에 대해 논의하고 예산을 짜서 청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도난이며 소란 등의 문제도 그룹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정부조차 포기할 뻔한 할렘가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난 것이다.¹³⁾

표 9. 페컴 지구 분석

구 분	내 용	
목적 및 방향	- 슬럼화된 지역의 환경개선	
계획내용 및 특성	-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복합 도서관 건립	
경관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 도서관 앞 넓은 터 조성
	건물외관	- 호기심을 유발하는 버섯 및 스머프 마을 형상의 독특함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 사업 전 주민설문, 주민의 그룹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운용 - 도서의 구입과 대출 관리 및 열람실 운영을 주민 자율에 맡김

(2) 셰필드시

셰필드(Sheffield) 시는 런던 북쪽 약 250Km 지점에 위치한 요크셔(Yorkshire) 지방의 중심도시로서, 인구는 약 56만 명이며 영구 제5위의 도시이며, 주변에 석탄이나 철광석 광산이 있고 운하와 접하고 있어서 산업혁명 이후 국제적 철강도시로 번영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혁명 이후 전통산업의 근간이 되어 온 철강산업의 쇠퇴, Manchester, Leeds 등 주변 대

13)네이버//blog.naver.com/ggoong?Redirect=Log&logNo=120015698741)

도시와의 경쟁력 약화, 도시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개발여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도시의 경제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도심상주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함께 도심부내 일정지역에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게 됨에 따라 도심부의 정주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주요 공장 부지나 역사시설 등 핵심적 시설의 약 30%가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등 도심부 쇠퇴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셰필드에서는 다양한 정책 및 콘텐츠를 통해서 도시의 전반적인 활력을 재생하고자 하였다.¹⁴⁾

셰필드시 정부에서는 도심종합개발계획(City Center Integrated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도심부에 첨단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도심부가 도시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셰필드 도시재생공사(Urban Regeneration Companies, URCs)인 "Sheffield One"을 결성하고 이 기구 주도하에 셰필드 시 도심재생기본계획(City Center Masterplan)을 수립하였다.¹⁵⁾

표 10. 셰필드시 분석

구분	내용	
목적 및 방향	- 도시의 전반적인 활력 재생	
계획내용 및 특성	- 양질의 소매업종 집중적 육성	
	- 오페라 하우스, 복합문화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 집적	
	-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의 중심생활공간을 도심재생의 계획요소로 적극 활용	
경관	- 보존목록 건물들의 개·보수와 재이용을 통한 지역적 문화유산 고양	
	보행·가로 공간	- 도심부 연계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충, 보행환경의 개선
	공원 및 녹지공간	- 양질의 공공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보행자공간연계)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 역전광장 신설
	건축물	- 외부 지향적 건물,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
	건물외관	- 개·보수와 정비를 통해 외관 개선
기타	- 주차건물의 건설	

도심재생기본계획은 우선 노후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부의 Peace garden 주변지역 10여 ha를 새로운 소매지구로 지정하여 3,000여 개의 신규직업을 창출하고 양질의 소매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내세웠으며, 4개의 대형블록으로 구성되는 Town Hall 주변지역은 Tudor Square를 중심으로 Lyceum Theatre 등 4개의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 복합문화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최근에 개장된 Millennium Gallery와 Winter

Garden의 조성을 통해 도심부의 역사·문화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셰필드 역사를 포함하여 주변 외부공간을 정비하고 도심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교통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6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건물의 건설, 보행육교 및 리프트의 설치 등이 완료되었으며 Sheaf House의 리모델링, 역사 개·보수, 역전광장 신설, 버스 인터체인지 조성, 도심부 연계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도심부에 위치한 보존목록 건물들의 개·보수와 재이용을 통해 지역적 문화유산을 고양시키면서 개별 건물들의 위치, 매스, 디자인, 출입구 등을 공공공간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부에 부족한 공공공간과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보행자 공간과 연계하려고 하였다.

또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의 중심생활공간을 도심재생의 계획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심부 차량통과 교통을 지양하는 대신 외곽 공동주차장을 확충하고 경전철 도입, 버스노선의 확대,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충 등을 통해 보행 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다.¹⁶⁾

4.4 미국

(1) 샌프란시스코 예르바부에나 센터 지구

샌프란시스코는 내전 이후 도시 항구로써 크게 발전하면서 예르바부에나 센터(Yerba Buena Center) 지구는 항구의 기능을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로써 성장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구의 기능을 오클랜드로 넘겨주면서 가난한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으로 바뀌었으며, 더불어 도심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쇠퇴 지구로 간주되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인접한 금융 지구를 수반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지구로 부각됨에 따라 예르바부에나 센터(Yerba Buena Center the Arts, YBCA) 재생 계획이 수립되었다.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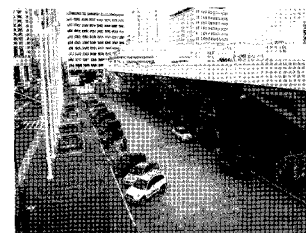


그림 3. 컨벤션 센터

년 재개발국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문화적·휴양적인 복합개발을 제안했으나 주민의 의사와 개발자금 문제로 인해 무산되었고 1976년 존슨 모스콘 시장에 의해 재추진되어 지하 건축형의 컨벤션센터 및 상부의 공원 이용 개발안이 제안되어 진행되었다.

1980년 샌프란시스코 약 200개의 예술 및 문화 활동의 그룹 대표가 예술 및 문화센터의 디자인시나리오를 제안함으로써 예르바부에나 센터(Yerba Buena Center the Arts, YBCA) 지구의 재생방향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

14) 김영환 외3, 영국 셰필드(Sheffield)시 도심재생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9호, 2003, p71

15) 김영환 외3, 영국 셰필드(Sheffield)시 도심재생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9호, 2003, p71

16) 김영환 외3, 영국 셰필드(Sheffield)시 도심재생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9호, 2003, p71

동 재 육, 이 병 대, 고 인 룡, 이 화 룡

은 호텔 등의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및 도심 공원, 주택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재생으로 접근하였으며, 역사적인 건축물이 복원된 수복형 재생방법이 특징이다. 그리고 단위 블록의 내부를 특화하였고 보행 네트워크를 통해 블록 간 연계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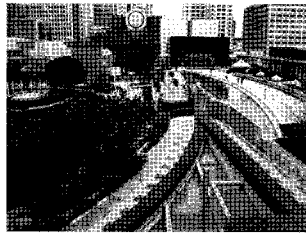


그림 4. 상부임체중앙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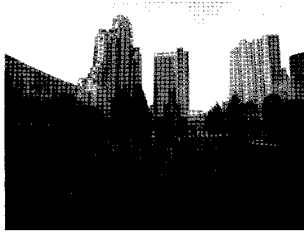


그림 5. 도심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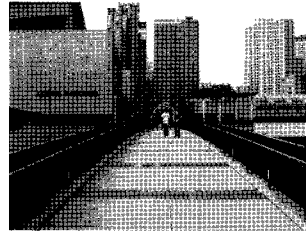


그림 6. 공중 보행가로

컨벤션 센터의 유입력은 국제적인 예술의 집합지로서 역할을 하였고 소니 메트레온과 결합한 호텔공간의 성장은 관광 산업을 크게 증대시켜, 남쪽 시장(South of Market) 지구의 경제적인 활기는 크게 증가하였고 땅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였다.

한편, 건설과 유지 및 안전과 그 사용 및 활성화에 대한 40년간의 많은 고찰을 통해 향상된 도시의 오픈 공간 디자인(Urban Open Space Design)은 커뮤니티를 목표로 한 디자인이었으며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표 11. 샌프란시스코 에르바부에나 센터 지구 분석

구분	내용
목적 및 방향	- 도시 전반적 활력 재생 및 재활성화
계획내용 및 특성	- 단위 블록의 내부 특화 - 보행 네트워크를 통한 블록 간 연계 및 활성화 도모
경관	보행·가로 공간 - 공중 보행가로, 보행 네트워크
	공원 및 녹지공간 - 중앙공원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 - 공공주도 민간단체 계획 참여
	개발방식 - 역사적인 건축물이 복원된 수복형

(2) 벌링턴

벌링턴은 뉴욕주의 아디론댁 마운틴(Adirondack mountain)이 바라보는 챔플레인호(Champlain湖)에 면해 있고, 캐나다의 몬트리올시에서 120km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다. 버몬트주 최대의 도시이지만 인구는 약 3만 9천명 밖에 되지 않는다.

벌링턴의 주요산업은 제조업으로써 IBM의 반도체 공장

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다운타운의 20개 블록 상업 지구는 서비스업, 행정업무, 소매업 등 9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관광업과 컨벤션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제조업에 이어 차세대 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벌링턴은 챔플레인호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아디론댁(adirondack)산지의 아름다운 랜드스케이프(landscape)와 그곳의 활기가 넘치는 휴먼 스케일, 향시 전개되고 있는 도시적인 활동(activity)으로 훌륭한 도시라고 평가되는 있으며 그 도시적인 활동의 중심은 자동차를 배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한 처치 스트리트·마켓 플레이스이다.



그림 11. 처치 스트리트·마켓 플레이스

표 12. 벌링턴(Burlington) 분석

구분	내용
목적 및 방향	- 주변의 풍토와 연계되도록 감각을 강조한 디자인 - 세련되지 않고 투박한 버몬트의 상업적 정서를 표현한 디자인 - 타인과 상인을 보다 잘 알기 위한 서로 모여 즐기는 장소로서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계획내용 및 특성	- 공공 공간 사용료 제도, 포장마차의 디자인도 상세한 규제
경관	보행·가로 공간 - 보행자전용도로, 벽돌 포장. 주변에서 산출되는 화강암 설치
	공원 및 녹지 공간 - 지방의 자생식물로 만든 정원과 분수 설치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 시민이 모이고, 함께 즐기는 광장 조성
	가로시설물 - 가로등, 벤치, 화단 등 심플한 디자인
	가로수 - 지역 자생 가로수 조성
	건물의외관 - 유리외 금속으로 연속된 차양을 설치
기타 - 깔끔한 디자인의 포장마차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 점포주와 토지소유자 및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 주민 설문
	추진주체 - 점포주와 토지소유자 및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유지관리
	개발방식 - 역사적 건물 보전

처치 스트리트·마켓 플레이스의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도시디자인과 그 운영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 개념은 벌링턴의 정체성을 집적시켜 그것을 전시하는 것으로써 주민들과의 설문을 통해 처치 스트리트·마켓 플레이스를 그들에게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3개의 테마를 제시했다¹⁷⁾.

17) Stephen carr, Mark Francis, Leanne G, Rivlin Andrew M. Stone, "Public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그것은 주변의 풍토와 연계되도록 감각을 강조한 디자인, 세련되지 않고 투박한 버몬트의 상업적 정서를 표현한 디자인, 타인과 상인을 보다 잘 알기 위한 서로 모여 즐기는 장소로서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이러한 테마를 토대로 하여 별링턴 지구의 개성적인 경관을 가로디자인에 반영시켰다.

5.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분석 종합

앞에서 분석의 틀을 통해 경관 마을 만들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크게 목적 및 방향, 계획 내용 및 특성, 경관, 마을 만들기의 4가지 관점으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 목적 및 방향

경관 마을 만들기는 지역의 전반적인 활력 재생 및 재활성화를 큰 목적으로, 주거부문과 경관부문 그리고 상업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으로 그 목적과 방향을 구분할 수 있다.

표 13. 사례 종합분석 - 목적 및 방향

순서	내용	사례
1	- 노후 주거지의 도시재생 - 골목길과 건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명랑한 주거 커뮤니티 조성	부산
2	- 지역 주민에 의한 경관 형성 의식의 촉진과 역사적 경관 보존	우스키
3	- 역사와 문화의 마을 만들기	오부세
4	- 슬럼화된 지역의 환경개선	페컴
5	- 도시(구도시)의 전반적인 활력 재생 및 재활성화	쉐필드, 예르바부에나
6	- 주변의 풍토와 연계되도록 감각을 강조한 디자인, 세련되지 않고 투박한 버몬트의 상업적 정서를 표현한 디자인, 타인과 상인을 보다 잘 알기 위한 서로 모여 즐기는 장소로서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별링턴

먼저 주거부문에 있어서 경관중심의 마을 만들기의 경우, 노후 주거지의 도시재생, 골목길과 건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명랑한 주거 커뮤니티 조성, 인구가 정착하는 활기 있고 안전한 마을, 슬럼화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경관부문에 있어서는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 및 참여 촉진, 역사적 경관 보존 및 역사와 문화의 마을 만들기,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친근한 가로 만들기과 질 높은 가로 입면을 통한 양호한 가로경관 창출, 주변의 풍토와 연계되도록 감각을 강조한 디자인 등으로 정리되었다.

5.2 계획내용 및 특성

경관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의 계획내용 및 특성에 관한 내용은 경관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그리고 운영관리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4. 사례 종합분석 - 계획 내용 및 특성

순서	내용	사례
1	- 건물 벽면 및 담장에 마을의 정서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벽화	부산
2	- 주민들 자신을 위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오부세
3	-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복합도서관 건립	페컴
4	- 양질의 소매업종 집중적 육성 - 오페라 하우스, 복합문화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 집중 -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시민의 중심생활공간을 재생의 계획요소로 적극 활용 - 보존목록 건물들의 개·보수와 재이용을 통한 지역적 문화유산 고양	쉐필드
5	- 단위 블록의 내부 특화 - 보행 네트워크를 통한 블록 간 연계 및 활성화 도모	예르바부에나
6	- 공공 공간 사용료 제도, 포장마차의 디자인도 상제한 규제	별링턴

5.3 도시경관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경관에 영향이 큰 요소별로 구분하여 표 1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5. 사례 종합분석 - 경관적 측면

구분	내용	사례
보행 및 가로 공간	- 도로와 접하는 부지 부분의 적극적 녹화 - 도로변의 담은 생울타리 등으로 녹화	오부세
	- 도심부 연계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충, 보행 환경의 개선	쉐필드
	- 공중 보행가로, 보행 네트워크	예르바부에나
	- 보행자전용도로, 벽돌 포장. 주변에서 산출되는 화강암 설치	별링턴
공원 및 녹지 공간	- 쌈지공원 및 중앙공원 조성	예르바부에나
	- 양질의 공공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보행자공간연계)	쉐필드
광장 및 오픈 스페이스	- 건물 앞 공간의 휴식 장소로 이용	오부세, 페컴
	- 역전광장 및 차별화된 광장조성	쉐필드, 별링턴
	- 지방의 자생식물로 만든 정원과 분수 설치	별링턴
가로 시설물	- 무전주화·전선의 지하 매설	우스키
	- 가로등, 벤치, 화단 등 심플한 디자인	별링턴
가로수	- 도로와 접하는 부지 부분 적극적 녹화	오부세
	- 지역 자생 가로수 조성	별링턴
간판	- 광고물은 절도를 가지게 세움	오부세
건축물	- 외부(가로)지향적 건물	쉐필드
	- 다양한 테마의 벽화(공공디자인)	부산
	- 외장을 전통적 디자인으로 통일	우스키
	- 평지붕 지양 - 건물 외관과 색은 주위 배경에 맞춤 - 차고, 헛간 등 밖에서 보이는 것은 위치와 색을 고려, 식재 등으로 녹화 - 호기심을 유발하는 버섯 및 스머프 마을	오부세 페컴

	형상의 독특함	
	- 개·보수와 정비를 통해 외관 개선	쉐필드
기타	- 유리화 금속으로 연속된 차양을 설치	별링턴
	-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모습 정의	우스키
	- 주차건물 신설	쉐필드
	- 깔끔한 디자인의 포장마차	별링턴

5.4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측면에서는 지원제도와 주민참여, 추진주체, 개발방식으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6. 사례 종합분석 - 마을 만들기 측면

구분	내 용	사 례
지원 제도	- 개축·신축 등의 건축행위가 역사적 경관 유지 보전에 어긋난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보조금 교부	우스키
주민 참여	- 디자인 기획부터 벽화 그리기까지 전 과정에 주민과 학생 등 230여명 자원봉사자와 같이 참여	부산
	- 아름다운 거리풍경 경관을 지키는 모임 결성, 역사적 거리풍경의 보호 의식 앙케트 실시	우스키
	- 자기 토지를 자발적으로 조금씩 양보, 보도 확보 및 주차공간 확보	오부세
	- 정부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목표 설정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실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표창제도	
- 점포주와 토지소유자 및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 주민 설문	별링턴	
추진 주체	- 시 주도로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산
	- 관·민·산·학의 협동 작업	우스키
	- 행정에 의한 역사적 경관 보전을 마을 만들기	
	- 주민과 행정이 각각 역할 분담하면서 정비 시행	오부세
	- 공공주도 민간단체 계획 참여	에르바 부에나
- 점포주와 토지소유자 및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유지관리	별링턴	
개발 방식	- 역사적 경관 보전 조례에 의한 건축행위	우스키
	- 역사적인 건축물이 복원된 수복형 및 보전형	쉐필드, 별링턴

6. 도시경관중심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방안 제시

도시경관 중심의 마을 만들기 방안으로서 경관 측면에서는, 보행 및 가로 공간, 공원 및 녹지 공간,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가로시설물, 가로수, 간판, 건축물의 외관 및 연속성 등 도시경관의 주요한 요소를 중점으로 진행 하였고,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는 지원제도, 주민참여, 추진주체, 개발방식 등을 주요요소로 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경관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례들에 대하여 분석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도시경관 중심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6.1 목적 및 방향

도시경관중심의 마을 만들기의 목표는 크게 3가지로써 첫째 개성적인 도시이미지 창출 등 도시이미지 제고, 둘째 도시경쟁력 제고, 셋째 지역경제를 포함한 도시의 전반적인 활력 재생 및 재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향은 첫째 환경개선 및 도시공간구조 재편, 둘째 다양한 기능들의 복합 및 연계개발, 셋째 인간중심의 자연친화적 도시정비, 넷째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 및 참여 촉진, 다섯째 역사적 경관 보전 및 역사와 문화의 마을 만들기, 여섯째 주민들 자신을 위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6.2 계획내용 및 특성

계획 내용은 디자인, 역사·문화, 기능, 환경개선, 공간의 연계, 지역 커뮤니티, 제도 등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디자인 측면으로 주변의 풍토와 환경을 반영·강조한 디자인, 지역적 정서를 표현한 디자인, 타인과 상인이 서로 모여 즐기는 장소로서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관·민·산·학 등의 디자인 협력, 포장마차·노점상 등 미세한 부분까지의 상세한 디자인 등이 있다.

둘째, 역사·문화적 측면으로 역사성 있는 도시 중심축 유지, 고도의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용,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버려진 문화유산 개·보수와 재이용, 오페라 하우스·복합문화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 집적 등이 있다.

셋째, 기능적 측면으로 쇠퇴한 상가기능의 체육·여가·상업 등의 복합기능으로 전환, 빈 점포의 저가 임대 및 버룩시장·프리마켓·육아지원시설 등으로 활용 모색, 기존 상점가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보행 공간 및 역전광장 등과 연계한 상업공간의 재구축, 전통적 상업 및 서비스기능의 유지발전, 양질의 소매업종 집중적 육성 등이 있다.

넷째, 환경개선 측면으로 연도형 상업시설로 보행공간의 연속성 확보 및 환경 개선,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친근한 가로 만들기, 느리지만 꾸준한 개선 등이 있다.

다섯째, 공간의 연계 측면으로 보행 공간 및 공원, 광장 등의 네트워크, 도시의 중요한 공공경관 포착하여 연계, 도시의 기존 주요 어메니티들(공원, 광장, 시장, 문화유산 등)의 연결 등이 있다.

여섯째, 지역 커뮤니티 측면으로 광장 등 시민의 중심생활공간을 활용한 축제 정례화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 마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오픈카페 및 복합도서관 등 커뮤니티 센터 개설 등이 있다.

일곱째, 제도적 측면으로 양질의 공공 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 공간 사용료 제도, 도로에 따른 토지이용 및 건축 밀도를 3~4단계로 적용하는 제도를 통한 계획적인 도시경관 계획 등이 있다.

6.3 경관

(1) 보행 및 가로 공간

보행·가로 환경 개선, 기능적 측면, 바닥재질의 고민,

녹색거리(Green Streets) 계획, 공간의 연계 측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보행·가로 환경 개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확보, 보행 공간 확장, 가로환경 정비,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가로벽화사업, 다양한 가로 디자인 등이 있다.

2) 기능적 측면

특성화거리 개발, 특화된 보행 쇼핑골·명품상업거리 조성 등이 있다.

3) 바닥재질의 고민

시민들이 직접 재배한 화분을 보행로 바닥에 깔음, 다양한 재질의 벽돌 포장, 주변에서 산출되는 암석 재질 설치 등이 있다.

4) 녹색거리(Green Streets) 계획

도로와 접하는 부지 부분의 적극적 녹화, 도로변의 담은 생울타리 등이 있다.

5) 공간의 연계 측면

보행 동선의 네트워크, 각 시설(광장, 공원, 상점 등)과 보행공간과의 연계, 도심부와 연계한 보행자 전용도로 확충 등이 있다.

(2) 공원 및 녹지 공간

소공원·쌈지공원·중앙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 조성, 각 필지의 공개공지를 하나로 묶어 조성한 녹지 공간, 공원을 Wall Basket(벽걸이형)으로 꽃을 심어서 장식 등의 디자인 계획, 양질의 공공 공간 및 녹지 공간의 보행자 공간 연계 등이 있다.

(3)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전 후면 역전광장 조성 및 차별화된 광장조성, 단절된 철도부지 상부에 대규모의 데크 광장 조성 및 양측 연계, 건물 앞에 휴식 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보·연계, 지방의 자생식물로 만든 정원과 분수 등의 수(水)경관 요소 설치 등이 있다.

(4) 가로시설물 등

미적이고 현대적인 조각 작품 조성 혹은 독특한 가로조형물 설치, 무전주화·전선의 지하 매설, 가로등·벤치·화단 등 가로시설물 파 가로수, 간판 디자인 등이 있다.

1) 가로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적극적 녹화, 연속성과 연계성을 가진 가로수 계획, 지역 자생 가로수 조성 등이 있다.

2) 간판

절도 및 질서 있는 배치, 규격 및 색감 통일 등이 있다.

(5) 건물 외관

차별성 및 다양성 측면, 지역성 및 역사성 측면, 연속성 및 맥락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차별성 및 다양성 측면

차별화된 건축디자인, 다양한 테마의 벽화, 호기심을 유발하는 독특한 형상, 평지붕 지양 등이 있다.

2) 지역성 및 역사성 측면

건물 벽면 및 담장에 마을의 정서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벽화, 전통적·역사적인 입면 특성 보전·부흥 등이 있다.

3) 연속성 및 맥락적 측면

유리와 금속으로 연속된 차양을 설치, 건물 외관과 색은 주위 배경에 맞춤, 차고, 햇간 등 밖에서 보이는 것의 위치와 색 고려 및 식재 등으로 녹화 등이 있다.

(6) 기타

학생용 경관교육 프로그램 상영,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모습 정의, 주차건물 신설, 깔끔한 디자인의 포장마차 및 노점상 등이 있다.

6.4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부문은 지원제도, 주민참여, 추진주체, 개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원제도

1) 재정지원

교부금지원 및 새금우대, 계획 수립 비용 정부 보조, 도시재생기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거의 전액을 정부기금으로 보조, 도로 정비 등의 인프라 사업도 도시재생기구가 토지를 직접 사들여 시행, 개축·신축 등의 행위가 역사적 경관의 유지 보전에 어울린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보조금 교부 등이 있다.

2) 인력지원

마을 만들기 전문가 파견 등이 있다.

(2) 주민참여

주민참여 부문은 사업 시행 및 계획과정 측면과 주민참여 유도,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행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및 계획과정 측면

사업 전 주민설문, 기획 및 계획 초기부터 전 과정에 주민이 같이 참여 등이 있다.

2) 주민참여 유도

쌈지공원 등의 이름 아이디어 공모, 지역경관에 대한 테마사진·아이디어 공모, 시민들이 직접 재배한 화분의 보행 및 가로시설에 이용, 도시경관 시민포럼 실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실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표창제도 등이 있다.

3) 주민의 자발적 행태

아름다운 거리풍경 경관을 지키는 모임 결성, 토지를 자발적으로 조금씩 양보하여 보도 및 주차 공간 확보, 정부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목표 설정,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주민 자율에 의한 운영관리, 상인과 토지소유자 및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3) 추진주체

시 및 공공의 주도, 공공주도와 민간단체 계획 참여, 민간기구(마을 만들기 센터) 중심 추진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장기간에 걸친 관의 지속적인 선 투자와 민간개발 유도, 관·민·산·학의 협력 추진, 주민과 행정이 각각 역할 분담하면서 정비 시행 등이 있다.

(4) 개발방식

전면 재개발 형식이 아닌 커뮤니티에 무게를 둔 수복형 개발과 역사적인 건축물이 복원된 수복형 및 보전형 등이 있다.

7. 결 론

본 연구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해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지자체 사례를 통해 경관중심의 마을 만들기의 내용과 특성 및 방향을 정리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의 일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각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계획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부문은 크게 보행·가로 공간, 공원·녹지, 가로시설물, 가로수, 간판, 건축물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마을 만들기 부분은 사업 전 주민설문과 기획 및 계획 초기부터 전 과정에 주민이 같이 참여, 썬지공원 등의 이름 아이디어 공모, 지역경관에 대한 테마사진·아이디어 공모, 토지를 자발적으로 조금씩 양보하여 보도 및 주차 공간 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진주체와 관련하여 민간기구(가칭 마을 만들기 센터)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형태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앞에서 검토한 선행사례들을 면밀히 검토, 보급하여 경관중심의 마을 만들기를 파급 시키는 확산의 기지로 활용 하여야하며 향후 끊임없는 연구와 선진사례지역에 대한 경험의 공유는 앞으로 마을 만들기를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오민근, 마을 만들기와 마찌즈쿠리, 그리고 지역 활성화, 정보광장 10월호(통권148호), 2003
2.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p.96
3. 서순탁 외1, 한국과 대만의 마을만들기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협동학술대회, 2008, p.381
4. 송혜승 외2,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선행사업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3권 제3호, 2008, p.39
5. 허윤경 외3, 지역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주민참여기법 사례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하계학술발표집 제8권 제1호(통권 14호), 2008, p.66
6. 이윤석 외1, 합평군과 나가하마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비교연구 -마찌즈쿠리 구조모델 적용과 행정의 역할과약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우수졸업논문집 제4권 제1호(통권4호), 2008, p.82
7. 허윤경 외3, 지역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주민참여기법 사례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하계학술발표집 제8권 제1호(통권 14호), 2008, p.67
8. 김영환 외3, 영국 셰필드(Sheffield) 시 도심재생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9호, 2003, 71page
9. 다무라아키라, 장준근외 역, 마을 만들기와 도시경관, 형설출판사. 2008
10. 이병대 외1 일본 경관협정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한국 디지털 건축 인테리어 학회 2009
11. Stephen carr, Mark Francis, Leanne G, Rivlin Andrew M. Stone, "Public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논문접수일 (2009. 6. 24)
심사완료일 (1차 : 2009. 7. 8, 2차 : 2009. 7. 22)
게재확정일 (2009. 7. 25)